국내채권 거래증권사 현황

국내채권 거래증권사 (2019. 1분기 말 기준)

교보증권, 기업은행, 대신증권, 리딩투자증권, 메리츠종금증권, 미래에셋대우, 바로투자증권, 부국증권,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, 서울외국환중개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, 지에프아이코리아, 케이프투자증권, 코리아에셋투자증권, 키움증권, 토러스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 하이투자증권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한국자금중개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투자증권, 홍국증권, BNK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국민은행, KB증권, KEB하나은행, KIDB채권중개, KTB투자증권, NH투자증권, SK증권

[비고]

- 총 기 관 수 : 40
- 신규기관 명 :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홍국증권
- 제외기관 명 : 골든브릿지투자증권, 크레디아그리콜은행
- 사명변경기관 : 하이투자증권(구 HI투자증권)